

낭만의 숲으로 떠난 영화 소풍 성료

‘명품 브랜드 뮤즈가 된 한국 전통문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공연·전시·책방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성공 개최

국내 최초 전통문화예술 플랫폼 ‘모던한’ 조인선 대표, 전북지식살롱 7회차 강연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6일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6일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26개국 88편의 영화들과 공연, 전시, 책방 등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영화제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콘서트, 야외토크를 비롯해 관객과의 대화, 토크시네마 등이 진행되었으며 올해 ‘네스트 액터’ 변요한의 [배우]로 변요한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 전시는 매시간 관객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키즈스테이지에는 초여름 영화 소풍을 즐기기 위해 영화제를 찾은 가족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며, 매일 저녁에는 김필, 멜로망스, 적재, 프롬, 전진희, 데이먼스 이어 등의 공연과 무성영화 라이브연주, 영화 상영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낭만의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대자연 속 함께하는 영화제만큼 일회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이용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무주등나무운동장 방문 관객을 제한함으로써 관객들로부터 높은 만족감을 이끌어냈다.

영화제 기간 내내 관객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은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총 5일간 유료 관객 13, 534명을 기록했으며, 개막식과 시상식, 덕유산 국립공원 대립회장, 키즈스테이지, 전시 등 무료 상영 및 프로그램 참여 관객을 포함하면 약 3만2,000명의 관객이 무주산골영화제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작년이 비해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무주산골영화제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국내 유일의 낭만 영화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인 ‘창’ 섹션은 총 9편의 영화들이 상영되었으며, 이 중 5개 부문의 시상이 이뤄졌다. 먼저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뉴비전상은김보람감독의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이석, 신수원, 심재명, 3인의 심사위원들은 “영화의 표층에 드러난 문제는 식탁장애와 모녀 간의 갈등이지만, 두 사람을 통해 제기되는 문젠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정도로 넓고 깊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이에 수

상자 김보람 감독은 “창작자로서 심사위원의 지지를 받아서 기쁘다. 특히 무주산골영화제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공감을 받아서 무척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과인>은 감독상과 영화평론가상을 동시에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들은 “등장인물, 상황 묘사, 극적 전개 등 영화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다. 다루기 힘든 조각들을 한 편의 영화로 성공적으로 조지해낸 이정홍 감독의 연출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영화평론가상 심사를 맡은 송경원, 차한비, 한창욱 영화평론가 역시 작품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캐릭터를 흥미진진하게 세공하는 솜씨와 개성 있는 호흡 전개, 동시대 한국사회의 주요 면모가 영화 곳곳에 녹아있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이에 이정홍 감독은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에너지를 느꼈다.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감독인 내게 큰 힘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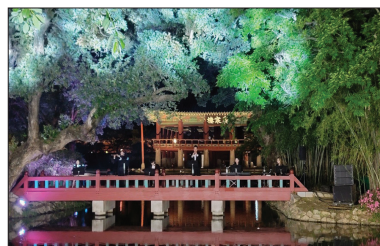
연출 이외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아빈 크리에이티브상에는(지옥만세)의 오우리 배우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오우리 배우의 연기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캐릭터에 갇히지 않고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수상한 오우리 배우는 “(지옥만세)는 내게 배우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무주관객상에는 역대 최고의 관객 점수를 얻은 조현철 감독의 <너와 나>가 수상해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총 5일간 26개국 88편의 영화들과 다채로운 토크, 공연 이벤트로 국내 유일의 낭만 영화제임을 확실히 입증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제’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내며 내년을 기약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금요 상설공연 ‘광한루의 밤 풍경’

남원시립국악단이 광한루원의 수려한 야간 경관을 활용하는 상설공연 광한루의 밤 풍경이 6월에서 9월(혹서기 제외)까지 매주 금요일 밤 8시 광한루원에서 펼쳐진다. 영주각과 방장정 일대에서 진행되는 광한루의 밤 풍경은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소개하는 국악 버스킹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퓨전국악, 기악합주, 판소리, 무용 등)로 구성된 광한루원의 야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광한루원은 오후 6시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야외공연 특성 상, 우천시 취소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악 버스킹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퓨전국악, 기악합주, 판소리, 무용 등)로 구성된 광한루원의 야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광한루원은 오후 6시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야외공연 특성 상, 우천시 취소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립풍물단 ‘연희 STAGE’

제21회 정기공연 15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개최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익산시립풍물단이 신명나는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풍물단은 오는 15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1회 정기공연 ‘연희 STAGE’를 개최한다. 연희는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맡고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를 의미한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기쁨과 슬픔, 힘듦과 즐거움이 수없이 반복되는 줄 위의 관객과 같이 삶을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생동하는 삶의 추임새 연희 STAGE’라는 주제로 경기·충청도 지방의 윷다리 농악과 줄놀이와 함께 펼쳐진다. 윷다리 농악은 빠르고 경쾌한 특징이 있어 고난도의 에능을 표현한다. 전문 예인의 농악답게 모든 연희자가 상모를 돌리고 소고의 채상모 놀임과 비나놀이 등 다양한 연희적 요소를 선보인다. 흥겨움을 더해줄 줄놀이는 줄꾼이 3m 높이의 줄 위에서 40여가지의 잔 노릇을 부리며 노래와 재담 등을 한다. 현재 줄놀이는 많은 나라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줄놀이는 줄꾼의 재담과 화려한 몸짓



등이 특징으로 줄놀이를 보는 관객의 흥을 불러일으킨다. 익산시립풍물단 정기공연에서 펼쳐지는 농악과 줄놀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1인 4매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859-3306)로 하면 된다. 공연 종료 후 익산시립예술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